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강화 양상 연구

안인숙(대진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강화 |
| 2.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관계 | 4. 결론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비언어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의사소통의 다양한 의미 변화의 원인을 통하여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 강화 양상을 고찰하는데 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삶을 영위한다. 의사소통은 작은 단위로는 자기 내부적 의사소통부터 넓게는 수많은 자기 외부적 대상과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의 핵심은 인간의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몸짓언어(Body language)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언어적 요소가 상징대상에 대한 자의적인 사회적 언어약속에 기인한 것이라면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약속 이전에 표현되는 동작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몸짓으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무의식중에 나타나게 되는 몸짓 언어는 언어적 요소의

본질에 근접해 있다고 보여 진다. 의성어·의태어 또한 자의성보다 상징대상에 근접한 언어적 필연성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요소와 같은 대상의 본질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된다. 이노미(2006)에서는 원활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손짓언어의 불일치성을 최소화하려면 비언어 의사소통 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손짓언어 인지능력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반언어적 표현은 언어와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으로 속도, 강약, 고저, 음량, 음질에 따라 기쁨, 놀람, 분노, 짜증, 조롱 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와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 대화 시 상대방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정, 눈길, 손짓, 몸짓(제스처), 옷차림, 태도 등을 말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에 대해서 박정순(2007)에서는 몸짓이나 시간 또는 공간을 상징으로 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였고, 골더버는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모바와 포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상황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잠재적 메시지 가치를 갖는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 야기된 언어를 제외한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발표 상황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박은영(2006)에 의하면 ‘발표’는 한 사람의 연사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알거나 생각하는 바를 다수의 청중에게 제시하고 전파하거나 그들을 설득시키는 대중 전달적인 특징을 가진 말하기의 유형이며, 스피치 상황 중에서 가장 격식을 요한 상황이니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손세모돌(2002)에서는 대학생들의 발표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 가운데 청중에게 호감을 주는 신체동작을 분석하여, 그것이 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을 제시하였고, 청중은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신체언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최근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문화를 결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정승(2006)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유형과 그 유형에 따라 얼굴과 눈, 몸짓과 자세, 신체접촉, 공간과 환경으로 분석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비언어적 표현을 위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 강화 과정을 범주화개념¹⁾으로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²⁾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화자의 '의사'와 '비언어적 표현 요소'의 형태로 구분하여 '원형'은 화자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전달 전의 의사'로 규정하고 확장형은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의미의 확장 혹은 강화'로 구분하려고 한다. 비언어적 의사표현에서 청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하고 원래 원형의 의사와는 다른 형태로 인지하기도 한다. 비언어적 표현이 반복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모아지면서 화자의 원형 의사가 그대로 청자에게 전달되어 화자와 청자가 연결되는 데 이를 완성형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오감의 반복이나 추가를 거쳐 의미강화 되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강화를 침묵, 몸짓언어의 요소로 구분한다. 눈빛 교환과 미소 짓기 실험을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가 강화되면 의미원형에 가까워지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언어만으로는 인간의 의사소통이 완벽할 수 없으며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관계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보조도구로써 인식되

- 1) Rosch, E.(1975:229~33)는 범주의 원형에서 새의 범주를 원형보기, 보통보기, 비원형적 보기로 구분하였다. 원형보기는 참새로 보통보기는 갈가마귀, 황금방울새, 비원형 보기는 꿩, 박쥐로 나타내었다. 원형적 보기의 특징은 주위에 자주 보고 익숙한 새, 날개를 사용할 수 있는 새, 어린 시절 새를 학습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그림과 함께 매치되었던 새로 보인다. 보통보기의 새는 2차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새의 이름이며 주위에서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책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새이다. 비원형적 새의 경우는 날지 못하거나 조류로 보기 힘든 새의 경우이다(임지룡:1997,76).
- 2) 안인숙(2007:74)에서는 원형이론은 원형(Prototype)으로 대표되는 중심요소와 무수한 변이형으로 이루어진 방사선 구조로 구성되는데, 그러한 범주화나 개념이 의미로 파악된다고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화자가 가진 의사 원형이 일정한 환경, 예를 들어 비언어적 표현의 반복, 환경의 제한, 언어적 표현과 함께 쓰일 때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한다.

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성과정을 제시하고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교한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의미의 강화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화자의 원형적 의미를 전달해주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2.1. 오감을 통한 의사소통의 과정³⁾

Berko, wolvin, Wolvin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통로를 8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동작학(kinesics:몸짓언어), 운율학(paravocalics:발성음), 근접학(proxemics:공간), 시간학(chronemics:시간), 후각학(olfactics:'냄새), 미학(aesthetics:음악과 색상), 육체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체형과 크기, 피부색), 장식품(artifacts:의류, 화장, 안경, 보석류)로 분류하고 각 분류는 Self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의 통로를 나타내는 것이다(이찬규:2003,130). 8가지 통로는 인간(Self)의 기본적 감각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4)

화자는 의사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와 더불어 비언어적 요소를 이용한다.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객관적 세계를 인지하고 사람의 발화 이전의 생각은 많은 인지의 조각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발화 이전의 사람의 생각은 오감을 통해 모아진 수많은 정보가 잘 정리되어 만들어진 도서관과 같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발화되어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외부의 정보가 사람에게 인지되었던 반대 방향의 과정을 통해 외부로 수출된다. 즉, 다시 오감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1)은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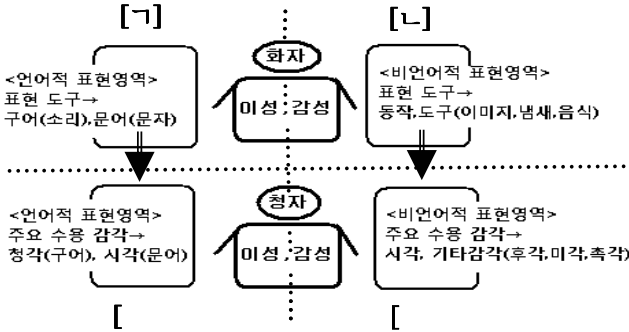
3) 오감(五感)은 외부의 정보 조각을 습득하고 인지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몸의 5가지 감각 기관을 말한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중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시각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다.

4) 8가지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통로를 오감을 통한 요소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학문	동작학 (몸짓언어)	시간학	운율학(발성)	후각학
감각	시각	시각	청각	후각
학문	근접학(공간)	미학	장식품	육체적특성
감각	시각	청각,시각		시각,촉각

5) 그림(1)은 안인숙(2007:44)에서 화자의 오감이 체계적 심리인식과 동작성 의미자질을 통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한 '언어정보처리과정'을 일부분 수정한 것이다. 그림(1)은

(1) 오감을 통한 의사소통



사람은 모두 오감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오감 중에서 시각과 청각이 주로 사용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촉각 혹은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은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게 된다. 4D영화관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을 통해 관람객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4D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은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관람객에게 가장 잘 전해지기 때문이다. 즉 감각이 강화될수록 의사소통은 더욱 원활하게 된다.

언어적 표현은 구어의 경우 소리로, 문어의 경우 문자로 표현된다. 만일 의사소통 당사자가 연인 사이였다면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침묵, 혹은 손을 잡는 다든지, 입맞춤 등의 촉각적 요소가 서로의 의사소통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은 상호협력의 관계에 있으며 청자가 받아들이기 가장 적합한 감각에 호소해야 의사소통이 효과적일 것이다. 시각 장애인이나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몸동작이 언어적 표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수정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인 ‘ㄱ’과 ‘ㄴ’부분을 제시하였다. 언어정보처리 과정에 대하여 안인숙(2007:77~78)에서는 의미자질을 논의함에 있어 대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언어령의 부분은 ‘베르니케 영역’임을 언급하고 있다.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모든 감각은 언어정보를 통합해 주는 언어연합령인 ‘베르니케 영역’으로 이전되는데, 이곳에서 각 감각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식범주인 체계적 심리인식과 결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자질이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베르니케 영역에서 단어의 의미가 부여되고 의미자질이 강화되어 지식의 범주화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2.2.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비교

2.1.에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은 모두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어서 전달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언어적 표현이 청각에 음성언어를 결합하여 전달되는 것이라면 비언어적 표현은 청각이외의 나머지 오감과 상징대상을 언어가 아닌 몸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전달하게 된다. 언어 표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청각 이외의 감각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일 수는 없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청자가 수용 가능한 감각을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함에 있어 언어 약속인 문자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화자의 발화 이전의 '의사 원형'에서 확장된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청각과 더불어 점자책을 직접 만져 보는 촉각에 의지하는 것이 언어적 의사소통이며 손짓, 눈짓 등의 몸짓언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손으로 대상을 직접 만져보는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일 것이다.

2.2.1.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차이

다음 예문(2)는 동일한 화자가 똑같이 “전화”라는 발화를 함에 있어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1950년대 루쉬(Ruesch)와 케스(Kess)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기초적 분류로 기호언어, 행위언어, 사물언어로 분류하였다.⁶⁾ 다음의 예문(2)에서는 사물, 기호, 행위 등을 사용하여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에서 의미의 강·약, 의미의 강화 및 다양성 등을 비교하여 보았다.

- (2) ㄱ) 언어적 표현 : 사물(意思) ⇒ 언어
 ㄴ) ☎ ⇒ 전화
 ㄷ) 비언어적 표현 : 사물(意思) ⇒ 비언어
 ㄹ) ☎ ⇒ ① 

6) J.Ruesch and W. Kess, *Nonverbal Communication: Notes on the Visual on the Perception of Human Relations*(Univ. of California Press, 1956).p.189. 심규성(2007:13)에서 재인용.

(2ㄱ)에서 언어적 표현은 사물이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2ㄴ)에서 보듯이 전화라는 사물을 표현할 때 ‘전화’라는 언어 기호를 사용한다. 반면에 (2ㄷ)에서 비언어적 표현은 전화라는 사물을 언어가 아닌 동작으로 표현했으며, (2ㄹ) 역시 전화라는 사물을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2ㄹ)에서는 전화라는 사물을 표현하는데 ‘㉠’이라는 동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언어적 표현에서는 ‘전화’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 반면에 (2ㄹ)의 ‘㉠’에서 비언어적 동작일 경우에는 ‘전화하다, 통화중,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사랑해(수화)’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ㄹ)에서는 전화를 표현하려고 의도하였기에 ‘㉠’ 다음에 ‘전화하다’라는 동작을 청자가 인식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 다음에는 언어적 표현인 ‘전화하다’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청자가 ‘전화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화자의 의사전달이 약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만약 청자가 외국인이어서 ‘전화하다’라는 한국어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인 ‘전화하다’보다 ‘㉠’의 동작언어가 훨씬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을 발화 이전의 의사 ‘원형’이라고 할 때 비언어적 표현의 ‘㉠’은 발화 이전의 의사 원형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화자와 청자가 언어 환경이 달라 서로 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은 환경의 제한으로 인한 의미강화를 형성하게 된다.

비언어적 표현에서 사물로서 ‘㉠’을 ‘원형’으로, ‘㉠전화 거는 모양’을 ‘확장형’으로, 생략된 ‘전화하다’라는 문자는 각 상황에 따라 의미강화를 형성하여 다른 형태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확장형의 의미분화’가 환경과 결합할 때 의사원형이 완성되어 진정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2.2. 의성어·의태어에서 찾은 비언어적 요소

우리나라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는 의성어·의태어에는 비언어적 표현의 모형을 많이 담고 있다. 의성어·의태어는 언어적 자의성보다는 언어적 필연성을 강하게 보이는 어휘군이다.⁷⁾ 예를 들어 ‘졸졸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어휘 내부에 상징대상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원형’이라면 의태어는 원형의 모습을 포함하는 ‘확장형’의 형태를 나타낸다. 특히 모양이나 동작을 상징하는 의태어의 경우에도 ‘원형’과 ‘확장형’의 ‘의미 강화’를 통해 의사전달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의성어·의태어가 비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이유도 의성어·의태어가 언어적 필연성에 기인하여 사물이나 주체의 움직이는 모양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5)에서는 의성어·의태어의 형성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5)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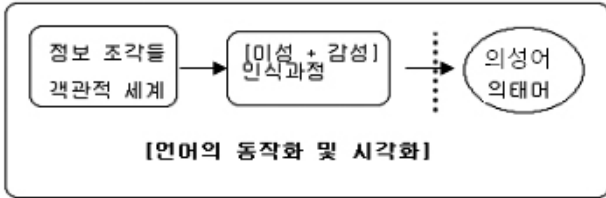


그림 (5)를 보면 오감을 통해 정보가 들어와 인식과정을 거쳐 사물의 모양을 상징하는 의성어·의태어가 만들어 진다. 이때 의성어·의태어는 중첩을 통해 동작의 연속과 강조를 나타낸다. 의성어·의태어는 시각·청각 및 기타 감각을 통해 인지되고 표현되는데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어 어감이 강화되거나 주체가 확정되거나 상황이 추가됨에 따라 원래 의미의 원형이 확실하게 구체화된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ㄱ. 끄덕

(6) ㄱ'. 끄덕끄덕

7) 노대규(1995)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음성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으로 나누고 음성적 분류를 다시 음성과 음운으로 나누어 준언어음과 덧언어음으로 제시하였다. 주저음, 감탄음과 같은 담화 표지와 호칭어, 의성어·의태어 등을 음성적 비언어로 분류한 것은 한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8) 그림(5)는 안인숙(2007:44)에서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의 의태어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ㄴ. 사랑	ㄴ'. 사랑사랑
ㄸ. 흔들	ㄸ'. 흔들흔들

(6ㄱ)보다 (6ㄱ')의 '끄덕끄덕'은 주어가 '고개'를 위 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모양을 느낄 수 있다. (6ㄴ)은 '바람이 가볍게 부는 모양으로 (6ㄸ)은 무언가 좌우로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6ㄱ', ㄴ', ㄸ')은 (6ㄱ, ㄴ, ㄸ)이 반복을 통하여 '동작 의미요소'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시각적인 비언어 표현으로서의 몸짓, 그래픽, 수기호 등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의성어·의태어의 특징 중 하나는 공기관계가 형성되어 주어와 서술어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원래 의태어가 형성된 계기가 주체의 상태나 움직임을 모방하거나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휘이기 때문이다.

3.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강화

언어적 표현과 다르게 비언어적 의사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일정한 환경이나 상황이 추가 되거나 반복 되는 경우 혹은 의미가 강화되어 의사원형에 접근하게 된다. 3장에서는 침묵의 의미파생, 두 가지 실험을 통한 몸짓 언어의 의미 강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3.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 언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기호를 통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넓게는 그림·사진·도형(圖形)·만화 등을 비롯하여 몸짓·손짓·얼굴표정·눈짓·몸의 자세·신체적 접촉 그리고 나아가서는 웃음과 울음, 하품, 옷과 화장 등을 통한 것까지를 포함한다. 입을 통해 말해지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의사표현을 통칭한다. 동작언어는 '일대일 대화', '소그룹 토의', '일대 다수' 강의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며 각기 상황에 따라 동작언어가 다르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인간

과 자연 혹은 인간과 동물과의 의사소통도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콘돈(Condon)에서 제시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심규성:2007,7-8).

(8)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비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문화와 인종에 따라 다르다.	보편적이고 자연적이며 학습되지 않은 행위도 포함한다.
체계화 되어 있다.	체계화되기 어렵거나 체계화시킬 수 없다.
사전(dictionary)이 있다.	수화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전이 없다.
반복해서 물어 볼 수 있다.	반복해서 물어볼 수 없다.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	내용의 통제와 왜곡이 어렵다.
언어와 내용이 일치한다.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콘돈의 주장에서는 언어에 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체계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인간의 학습되지 않은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고,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 체계적 연구가 쉽지 않으며, 반복 및 통제가 어려워 종종 언어와 상반된 의미를 전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비언어적 행위는 문화와 시대를 반영한다. 한 문화의 고유성과 개별성이 잘 유지되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점점 고속으로 발전하는 대중매체나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 세계 문화들 간에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지는 시대성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언어적 표현과 더불어 비언어적 표현도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생활습관, 문화풍습, 정치 배경 등이 동시대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9)

비언어적 행위는 언어적 표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흔히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의 외모, 몸동작, 머리모양, 얼굴 표정

9) 장영희(2006,74)에 의하면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사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손바닥을 부딪치면서 “Hi, Five” 하는 등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임을 제시하였다.

등을 통해 그에 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이 음성 언어에 앞서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정보는 의모나 얼굴 표정 등과 같은 시각적, 비언어적 단서에 의해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서로 상충될 때는 비언어적 표현이 더욱 신뢰받는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화자의 생각, 느낌, 태도라는 메타메시지¹⁰⁾도 전달되는데 메타메시지는 음성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언어에 수반되는 강세, 높낮이, 억양, 속도, 목소리 크기 등의 준언어적 특징, 얼굴표정이나 눈빛, 몸짓, 상대방과의 거리 등의 비언어적인 여러 특질에 의해서 표현되고 전달된다.

3.2.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강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기능에 따라 준비언어적¹¹⁾ 의사소통, 몸짓 의사소통(bodily communication)으로 눈짓·손짓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 악수나 입맞춤, 포옹 등의 접촉적 의사소통(tactile communication), 그림·사진·도형 등 도구를 사용하는 그래픽 의사소통(graphic communication) 등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를 통한 언어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의 부차적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훌륭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비언어적 의미형성에 중점을 두어 크게 침묵, 몸짓언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0) 메타메시지(meatamessage)란 메시지에 안에 내포된 메시지이다. 실제 대화내용, 대화 시기와 장소, 분위기,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느낌과 태도 등을 포괄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11) 조현용(2005)에서는 'Non-verbal communication'를 '신체언어'를 표현하는 것은 '비언어' 안에 '언어'가 포함되므로 '비음성적, 비구두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언어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준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분류되는 침묵에 대해 언어가 발화되기 전 상태이므로 '준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침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간단계에 속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입장에서 볼 때 모양이나 상태 등에 가까운 상태를 '준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3.2.1. 침묵¹²⁾의 다양한 의미 파생

침묵을 준 비언어적 표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준 비언어적 표현 중 침묵은 대화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강연 도중 잠시 침묵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침묵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때로는 경청을 위해 침묵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침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침묵은 다른 몸짓언어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양산한다고 할 수 있다. 침묵이 표현하는 뜻은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이 결정하게 된다.

(9) 침묵해석의 다양성

- ㄱ) 일방적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ㄴ) 부정적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ㄷ) 긍정적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9ㄱ)에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침묵은 독립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겉으로는 화자의 말을 듣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 내면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9ㄴ)의 경우의 침묵은 화자에게 동의하지 못한다는 침묵이다. 부정적 의사전달은 청자의 반대 의사로 타나날 수도 있지만 묵침으로 일관함으로써 화자에게 동의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비언어 전달일 가능성이 많다. 의사소통과정에서 청자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화자에게 피드백을 보내게 되는데 청자의 피드백이 부정적이라면 화자는 청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읽고 긍정적 의사전달을 할 수 없게 된다. (9ㄷ)의 경우는 침묵은 의사전달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일 수 있다.

(9)의 침묵을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다. 비언어적 표현은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침묵을 포함하여 음조, 강세, 말의 속도, 목소리크기, 억양 등은 준언어적 표현이다. 실제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 단위의 언어 이외에 그 언어를 포장하는 모든 전달 방법론적 부분이 모두 준언어적 표현이다. 여기서 침묵은 준비언어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3.2.2. 몸짓언어의 의미강화¹³⁾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몸짓 언어는 화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한다. 몸짓 언어는 보통 언어적 의사전달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적 의사전달의 의미를 강화하고 확장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표현의 보조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다양한 몸짓언어 중에서 본고에서는 수업과정에서 파악이 용이한 눈빛과 얼굴표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강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눈빛

눈빛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눈에는 진실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눈을 가장 많이 쳐다보게 된다. 눈이 신체 중에서 가장 시선을 많이 끄는 이유는 인간의 정보 습득이 시각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보는 오감을 통해 습득되고 오감을 통해 전달된다. 의사소통에서 눈과 눈이 서로 마주보게 될 때 언어로 전달되는 의사 표현 이상의 정보를 갖게 된다. 다음의 예문(10)에서는 수업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강의 도중 교수 즉 화자와 청자가 눈을 맞추는 경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분석은 2009년부터 2010년 3학기 동안 J대학교 말하기 강좌 ‘언어와 표현’ 수업을 통하여 시도한 것이다. 14)

- (10) ㄱ) 강의 도중 학생들을 골고루 쳐다본다.
- ㄴ) 강의 도중 한쪽 그룹을 주로 쳐다본다.
- ㄷ) 학생들을 거의 쳐다보지 않고 교재를 읽고 칠판에 필기한다.

13) 본고에서는 몸짓 언어 중에서 눈빛과 얼굴표정을 중심으로 의미 확장과 강화를 통한 원형을 고찰해 보았다.

14) 표본집단인 분석대상자를 연도별로 한반으로 하여 구성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연도	2009년 1학기	2010년 1학기	2010년 2학기
인원			
총 142명	40명	57명	45명

위의 실험 분석의 기준 (10)은 2009년1학기, 2010년 1~2학기에 각 학기당 강의를 듣는 반 중에서 한 반을 선택하여 16주 수업 중 1주를 분석한 것이다. 한 시간 동안 15분씩 (10ㄱ)부터 (10ㄷ)의 행위를 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하였다. (10ㄱ)의 경우는 각 학기당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 10명 총 30명과 시선을 맞추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키면 호명된 학생은 곧바로 대답과 함께 강사와 시선을 맞추었다. 시선이 마주친 학생 마다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었다. (10ㄴ)의 경우에는 주로 시선을 주는 쪽의 학생들이 시선이 가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가 높았다. (10ㄷ)의 경우는 학생들을 거의 주목하지 않고 한동안 교재를 읽고 바로 칠판에 필기를 하였다. 이 경우 앞쪽 학생들은 수업 집중도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나 뒤쪽에 있는 학생의 10%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에서 학생들과 강사의 시선이 어느 정도 마주쳤는가에 따라 수업의 집중도가 달라졌다. 교사의 시선 처리와 학생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1)

강사의 시선처리	대 상	반응과 수업집중도	해당자	백분율
학생들을 골고루 쳐다본다.	집중하지 못한 학생	눈이 마주치는 학생 집중도 향상	26/30	87%
한쪽을 주로 쳐다본다.	학생 중 특정 그룹	눈길을 많이 준 그룹의 집중도 높음	56/142	39%
교재를 주로 읽고 칠판에 필기	전체 학생	앞좌석:집중도 유지	35/142	25%
		뒷좌석:집중도 하락	14/142	10%

다음의 예문(12)에서는 시선처리와 더불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상황을 추가한 경우이다.

- (12) ㄱ)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시선을 맞춘 경우
 ㄴ) 강의 도중 중간 중간 시선이 우연히 맞춰진 경우
 ㄷ) 시선이 거의 맞춰지지 않은 경우

(12ㄱ)의 경우는 각 수업 당 5명에게 진행한 것이다. 질문을 받은 학생의 80% 정도가 수업이 끝날 때 까지 수업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었다. (12ㄴ)의 경우는 순간적인 집중을 했으나 오래 가지 못했으며 (12ㄷ)의 경우는 주로 앞에 앉은 학생은 집중을 유지 했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집중도가 낮았다. (12ㄱ)에서 학생들의 집중도는 시선이라는 비언어적 표현과 더불어 언어적 표현인 대화가 추가된 상황에서 급격히 올라갔다.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언어적 의사소통이 결합하여 ‘수업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강화된 상황이다.

의사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는 (12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강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전달하려는 것을 의미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시선 처리는 확장형으로 의미강화 역할을 한 비언어적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의사표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12ㄱ)의 경우의 의사소통의 목표는 ‘수업집중’이었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표현이 보조 역할을 수행한 예이다. 비언어적 표현인 시선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화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사의 원형에 근접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게 되고 질문과 답변을 함으로써 본래 의미 원형과 결합하게 된다. 분석된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방 법	반 응	비 고	해당자	백분율
시선만	일시적인 집중도	분석으로 유의미 하지 않음		
시선 + 대화	수업 끝날 때까지 집중도 유지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집중력향상⇒ 원형적 의미강화	12/15	80%

눈동자는 눈이 인식하는 빛의 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사람의 눈동자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나 흥미 있는 것을 볼 때는 커지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 때는 작아진다.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눈동자가 커지면서 긴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선이 마주치는 횟수와 태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이 마주치는 횟수가 많을수록 상대는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시선이 마주치는 횟수가 적다는 것은 서로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를 빨리 끝내길 원하는 심리를 담고 있다.

[2] 얼굴표정

얼굴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어 언어적 표현과 충돌되는 상황에서 얼굴표정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표현이 더 진실한 의사임을 알 수 있다.¹⁵⁾ 애크먼(Ekman)의 FAST기법을 이용하여 감정이 잘 표현되는 얼굴 부분을 놀람, 기쁨, 슬픔, 공포, 혐오, 분노 등을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심규성:2007,22).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얼굴¹⁶⁾표정은 언어적 의사표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얼굴표정의 효과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2010년 2학기 J대학교 ‘대화와 설득’ 말하기 강좌에서 7주차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2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 중에서 학생들은 ‘사람들에게 미소지어보기’를 2주 동안 주변사람들에게 실습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¹⁷⁾

15) 심규성(2007)에서는 감정이 잘 표현되는 얼굴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 얼굴표정으로 사용한 미소짓기는 얼굴 전체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진실하지 못한 억지웃음은 입주위의 근육만 사용되고 눈과 눈썹 주위의 근육이 사용되지 않는다.

부분 감정	입	눈	눈썹	코	이마	뺨
놀람	○	○	○	○	○	○
기쁨	○		○		○	○
슬픔		○	○		○	
공포		○	○			
혐오	○			○		○
분노	○				○	

16) Kapp, M. & J.Hall(1977), pp. 330-335.에서 얼굴이 언어 요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17) 실습은 2분반 총 78명이 참여하였다. 여기서 미소 짓기는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1분반 39명		2분반 39명	
남	여	남	여
21	18	28	11

(14)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 ㄱ) 대상: 78명의 학생이 개인당 10명의 타인을 대상으로
- ㄴ) 실험 방법: 10명을 대상으로 첫 주와 둘째 주 사이 미소에 대한 반응 분석
 (기준→ ① 평소 관계가 많은 대상: 6명
 ② 불편한 관계: 2명
 ③ 안면만 있는 대상: 2명

ㄷ) 실험 분석

항목	반응	인원	백분율	비언어적 요소 강화
초기1주일	긍정적 반응	530	68%	채 대면 시 미소 반복⇒ 긍정반응
	부정적 반응	250	32%	
합 계		780	부정적 반응	
1주일 후	긍정적 반응	624	80%	의사원형에 가까움
	부정적 반응	156	20%	의사원형에서 멀다
합 계		780		

분석된 표 (14)에서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는 학교나 가정,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 등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짓는 과제였다. 학생 개인당 10명을 대상으로 초기 1주일간 실험을 한 후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1주일에 다시 실험을 하였다. 실험대상 10명의 분석 기준은 평소 대면을 자주 하는 관계 6명, 불편한 관계 2명, 안면만 있는 관계 2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 기준과 비슷하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780명 중 530명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250명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초기 1주일 동안의 반응은 32%정도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채 대면이 늘어나고 미소가 반복될수록 긍정적 인식으로 변해갔다. 초기 1주일 동안 미소 짓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68%였는데, 다음 1주일 동안 미소 짓기가 반복됨에 따라 긍정적 반응이 80%로 증가하였다.

다음 표 (15)에서는 인간관계에 따른 반응을 대면이 많은 관계, 불편한 관계, 평소 안면만 있는 관계로 나누어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에 따라 반응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5) 인간관계에 따른 반응 변화

인간관계 구분		총인원			미소 화답	
					1주째	2주째
대면많은 관계	자주 웃은 관계	463	320	59%	315	315
	주로 웃지 않는 관계		143		83	92
불편한 관계		148	19%	20	69	
평소 안면만 있는 관계		169	22%	112	148	
합 계		780	100	530	624	

관계형성이 된 평소에 웃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왜 그래?, 무슨 부탁 있어?, 미쳤나?” 등의 반응도 나왔다. 반면에 관계형성이 되어있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미소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상황을 회복해 주는데 기여하였다. 미소가 지속되면서 반응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어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또한 평소 대화는 없고 안면만 있던 사람들은 다시 미소로 화답하는 비율이 높았다.¹⁸⁾

미소 짓기의 처음 시도에서는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경우 미소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긍정적 반응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미소 짓기 실험을 통해서 (16)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6) 미소 짓기의 의미 강화

ㄱ) 미소 짓기의 원형:

미소를 통한 ‘호의’가 긍정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¹⁹⁾

ㄴ)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강화(반응을 중심으로):

- ① 미소가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경우는 원형에 접근하여 강화
- ② 미소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경우는
반복할수록, 접근+대화가 많을수록 원형에 접근하여 강화

18) 한 학생의 경우 8명의 학교 후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처음 4명에게는 미소를 전혀 짓지 않고 대화를 시작한 결과 “예, 아니오” 등 형식적 대화가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나중 4명에게는 이름을 부르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시작한 결과 30분 이상 대화가 지속되었다.

19) 모리스(1994)에서는 미소가 원래 공포에서 변형된 것이며, 사회적 약자가 더 자주 미소를 짓는다고 지적하였다.

미소를 짓는 사람은 ‘호의’라는 의사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 미소가 지어질 때 환경이나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에 따라 원형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지만 미소가 반복될수록 원형에 점점 더 근접하여 처음 원했던 인간관계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진 미소가 아니라 호감을 가진 미소로 인식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화자의 미소의 원형에 가까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언어적 표현으로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라는 의도에 더 사실적으로 근접하고 언어적 의사표현으로 나타내기 힘든 진실성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파악된다.

4. 결론

지금까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나타내는 의미의 본질과 비언어적 요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통하여 밝혀낸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와 같은 공통적인 요소가 의태어에도 있음을 비교해 보았다. 화자는 청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청자의 오감에 최대한 호소하는 의사전달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단지 청각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전달함으로써 의미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강화가 커질수록 원래 화자가 의도했던 의사 원형을 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언어적 표현이 반복이나 환경의 제한, 언어적 표현과 함께 쓰일 때 의사 원형에 가장 가깝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눈빛 실험에서는 강의자와 눈빛이 마주친 학생 중 87%가 집중도가 높아졌다. 특히 일대일적 시선과 질문과 대답을 나눈 경우는 15명중 12명이 수업 끝날 때까지 집중도가 유지되었다. 이 경우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이 합해질 때 집중력이 강화되어 원형적 의미강화를 나타내 주었다. 2주 동안 진행된 미소 짓기 실험에서는 미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68%에서 80%로 상승하였는데 미소가 반복되고 대화가 많을수록 긍정적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화자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가 아니라 화자가 원래 의도했던 의사의 원형이다.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는 의사 원형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청자의 오감에 최대한 적합하게 표현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만일 의미의 강화를 이루지 못하는 비언어적 표현은 오히려 의사 원형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방해물임을 고찰하였다.

〈참고 문헌〉

1. 자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박용수(1989), 『우리말 갈래 사전』, 한길사.
신기철·신용철(1983),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2. 논저

- 김영순(2000), 「한국인 손동작의 의미와 화용」, 『한국어 의미학』6.
김영순, 임지룡(2000), 「신체언어와 일상 언어표현의 의사소통적 상관성」, 『언어과학연구』17.
김영순(2001), 『신체언어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영순, 임지룡(2002), 「몸짓 의사소통적 한국어 교수법 모형」, 『이중언어학』20.
김진혜(1999), 「연어(Collocation)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한국어어미학』4, 한국어어학회.
노대규(1996), 「한국인의 비언어적 의사 표현 행위」, 『梅芝論叢』13('96.2).
데즈먼드 모리스(1994), 『과학세대 역, 맨위칭:인간행동을 관찰한다』 까치.
박정순(2007), 「비언어적표현연구」, 금오공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남익(1998), 「국어 상징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 의미학』3, 한국어어미학회.
손세모들(2000), 「발표에서의 담화표지 연구」, 『교육연구』 2권 1호, 대전대학교 교육연구소.
손세모들(2002), 「신체언어연구-발표에서의 신체동작을 중심으로-」, 『한말 연구』10, 한말연구학회.
심규성(2007), 「한국어 교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인숙(2007), 「의성어와 의태어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의성의태어의 공기관계」, 『어문논집』 제38집.
이노미(2006), 「문화 간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인지능력 평가에 관한 비교

- 문화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자현(2007), 「의사소통 양식과 결혼만족도의 연관성」,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이찬규역(2003) 『A Social and Career Focus 언어 커뮤니케이션』, 한국문화사.
- 임지룡(1983), 「의미중복에 대하여」, 『배달말』8.
- (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장영희(2006), 「비언어적행위와 의사소통」, 『남서울대학교논문집』12.
- 정정승(2006),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표현 양상」, 『영미어문학』 제81호.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확장접미사 연구-생산력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국어연구』85, 국어연구회.
- 조일제(1999),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소통』, 서울, 한국문화사.
- 조현용,(2003), 「비언어적 해우이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연구」, 『한국어 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채 완(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광선(1999), 『몸짓을 읽으면 사람이 재미있다』, 일빛.
- 최윤희(1999),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기호학회(2001), 『몸짓 언어와 기호학』, 문학과지성사.
- Kapp, M. & J.Hall,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ntion, 1977,
- Nida, E.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 An Introduction to Semantic Structures.
- Ullmann, Stephen(1951), Principles of Semantics ; A Linguistic Approach to Meaning ; Jackson & Oxford ; Basil Blackwell.

【국문초록】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과 더불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그 활용이나 기능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의미론적 관점에서 화자의 발화 이전의 의사 원형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원형이론을 적용하여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오감을 통한 인식의 구간별로 분석하고 차이점도 제시해보았다. 특히 한국어에 발달되어 있는 의태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를 중심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의미확장을 통해 원래 화자가 의도했던 의사원형에 가까워지는 강화원리를 다루었다.

주제어 : 커뮤니케이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의미론, 원형이론, 오감, 의태어, 의미 확장, 강화원리, 몸짓언어

【Abstracts】

The Study of semantic reinforcement in Non-verbal Communication

An, In-Su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semantic derivation on nonverbal communication. Recent research show that non-verbal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in communication. but the most of the study is focus in the usage and function of it.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semantic derivation and reinforcement is the main emphasis in non-verbal expression of communication.

For this study, prototype theory is applied as a methodology in study. in the field of non-verbal communication, the inner expression of speaker is taken as a prototype, and the non-verbal expression, as a type of semantic derivation. prototype theory is applied to the body language

Through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semantic element between the verbal communicat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the trait of non-verbal communication have been applied to body language system.

the more the reinforce of meaning of expression. the more the original prototype of inner expression is cleared.

Key words : verbal, non-verbal, communication, semantics, prototype theory. the five senses, a mimetic word, semantic reinforcement, body

language, face expression, smile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